

25. 놓칠 수 없는 유명한 분재 작품

분재에 높은 평가와 가치를 가져다주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특히 3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는 나무의 나이, 형태 또는 디자인, 그리고 역사와 오늘날까지 살아온 과정과 증거입니다. 하지만 분재는 감상하는 이에 따라 느껴지는 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분재를 발견하는 것도 분재를 감상하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미술관에서는 관람객 여러분께 아래의 가장 유명한 분재는 꼭 감상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요노마쓰’라는 이름의 오엽송

컬렉션 중에서 가장 큰 분재 중 하나인 지요노마쓰는 총 높이 1.6 미터, 가로 폭이 1.8 미터입니다. 평선을 따라 뻗은 가지에서 광활한 풍경이 전해지며, 나무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일본 한여름의 파상운 모양을 연상시킵니다.

‘도도로키’라는 이름의 가문비나무

일본 최북단 섬(옛날에는 예조라고 불리던) 홋카이도의 숲에서 약 100 년 전에 채취해 컬렉션 중 가장 오래된 이 나무는 수령이 약 1,000 년 정도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나무 분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가린(모과나무)

150 여 년 된 분재의 웅장한 모습은 웅장한 숲의 주인을 연상시키며, 다 성장한 나무의 위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대대로 ‘가린’을 소장해 온 역사를 더듬어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저명인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1896 년~1987 년)가 유명합니다. 이 나무는 1980 년대에 일본분재협회에 의해 귀중 분재(문화적으로 중요한 분재) 제 1 호로 인정되었습니다.